

KYOBO

교보문고

開闔樞와 關闔樞

I. 緒論	11
II. 本論	12
1. 『靈樞』 「根結」	12
2. 『素問』 「皮部論」	13
3. 『素問』 「陰陽離合論」	15
4. 『靈樞』 「本藏」	16
5. 關闔樞의 의미	17
III. 結論	18

開闔樞와 關闔樞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김인라

I. 緒 論

『傷寒論』에서는 질병을 太陽病, 陽明病 등으로 언급하였는데, 朱肱이 『南陽活人書』에서 『靈樞』의 經絡유주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傷寒을 六經으로 해석하고 太陽病, 陽明病 등을 太陽經病, 陽明經病 등으로 보았다. 傷寒은 六經病이란 가정위에 柯琴이 開闔樞論으로 傷寒을 해석하였다. 柯琴은 『素問』 『陰陽離合論』에 근거하여 太陽經과 太陰經이 開이고, 陽明經과 厥陰經이 闔이며, 少陽經과 少陰經이 樞가 되고 이에 따라 상한병의 증상이 드러난다고 보았다.¹⁾ 이후로부터 開闔樞論은 傷寒病

을 해석하는데 자주 이용이 되고있다.

그런데 『內經』의 기본사고는 陰과 陽이 평형을 이루는데 있고, 이를 드러내는 언어도 陰과 陽의 조화에 충실하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가 對句法인데, 인간이 갖는 언어에 한계가 있어 對句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응용하고 있다는 것이 本人의 지론이다.

이러한 사고에 비추어볼 때 開闔樞에서 開와 闔이 명사라면 樞도 명사이어야 하고, 開와 闔이 동사라면 樞도 동사라야 한다. 하지만 명사로 본다면 闔은 '문짝'이고 樞는 '지도리'가 되는데 開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동사로 본다면 開는 '열다'가 되고 闔은 '닫다'가 되지만 樞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서 開闔樞는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²⁾

이러한 생각에서 『內經』을 살펴보건데 柯

1) 柯琴: 傷寒來蘇集, 傷寒論翼, 1978, 5-6.

『陰陽離合論』, "太陽爲開", 故仲景以之主表, 而以脈浮惡寒頭項強痛爲綱. ---陽明爲闔, 故以之主裏, 而以胃實爲提綱. ---少陽爲樞, 少陰亦爲樞, 故皆主半表半裏症, 少陽爲陽樞, 歸重在半表, 故以口苦目眩爲提綱, ---, 少陰爲陰樞, ---歸重在半裏也. ---太陰爲開, 又爲陰中之至陰, 故主裏寒自利. 厥陰爲闔, 爲陰中之

陽. 故主裏熱而氣逆. 少陰爲陰中之樞, 故所主或寒或熱之不同, 或表或裏之無定, 與少陽相似也.

2) 對句法에 근거하여 이를 교정한 것이 金仁洛의 논문 『內經』에 대한 對句法의 研究(1)이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71 - 72.에 실려 있다.

琴이 開闔樞論을 끌어낸 王冰본 『素問』 「陰陽離合論」 이외에도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素問』 「皮部論」과 『靈樞』 「根結」 그리고 『本藏』에 있고, 이 편들은 『太素』³⁾에서 각각 「卷第5 陰陽合」, 「卷第9 經脈皮部」, 「卷第10 經絡根結」, 「卷第6 五臟命分」에 있다. 우선 王冰本에서 開闔樞라고 할 때의 모순점을 제시하고, 『太素』 袁昶본⁴⁾, 蕭延平본⁵⁾, 그리고 東洋醫學硏究會에서 원판을 영인한 것⁶⁾ 등에 근거하여 開闔樞는 關闔樞를 잘못 쓴 것이며, 關闔樞는 六經이 邪氣를 막는 역할을 門에 비유한 것이고, 關은 문빗장, 闔은 문짝, 樞는 문지도리임을 밝히고자 한다.⁷⁾

II. 本 論

1. 『靈樞』 「根結」

「陰陽離合論」의 내용과 관련 된 것은 『靈樞』의 「根結」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王冰本에서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故開折, 則肉節瀆爲暴病起矣……闔折, 則氣無所止息而萎疾起矣……樞折, 即骨繇而不安於地.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故開折, 則倉凜無所輸, 隔洞. 闔折, 即氣絕而喜悲. 樞折, 則脈有所結而不通.”으로 되어있다.⁸⁾

이 부분은 『太素』 「卷第10 經絡根結」에 나오는데 袁昶本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太陽

爲開, 太陰爲開”로 되어있다. 하지만 蕭延平

4) 袁昶교; 黃帝內經太素.

楊上善의 『太素』는 宋代에도 겨우 세 권 만이 남아있음을 『宋志』에 의해 알 수 있고 뒷날에는 그나마도 중국에서 사라졌다. 다행스럽게도 애도말기에 일본 京都의 仁和寺에서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스물세 권과 조각난 것 열 석장이다.

빠진 것은 제 1, 4, 7, 16, 18, 20, 21권인데 발견된 스물세 권조차도 완전하지는 않다. 이는 8세기경 일본인 蜂田藥師船 사람이 손으로 베껴 쓴 것을 丹波賴基가 1151년에서 1158년 사이에 다시 베꼈고, 이를 다시 丹波憲基가 1166년에서 1168년 사이에 베낀 것으로서 각 편마다 끝부분에 베껴 쓴 때가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용범이 박사과정 3기로 중간발표한 『楊上善이 『太素』에 주를 단 시기 및 시대 배경 그리고 『黃帝太素』가 전해 내려온 과정에 대하여』에 있다. 光緒 증엽에 滿의 楊惺齋가 이를 영사하여 자신의 나라로 가져갔고, 1897년(光緒 丁酉)에 袁昶이 이를 출간하였지만 교정을 상세하게 하지아니하여 잘못 된 곳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大星文化社에서 이를 영인하였다.

5) 袁昶본을 蕭延平이 교정하여 1924년에 책을 내었고 1955년에 인민위생출판사에서 蕭延平 본을 영인하여 출판하였다.

6) 『太素』는 19세기 초에 발견되었는데 발견되었을 30권 중에서 일곱 권이 빠져 있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제 16권과 제 21권이 새로 발견되었고, 이미 발견된 제 22권 중에서 빠진 부분도 일부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를 일본 盛文堂의 漢方醫書頒布會가 이미 발견된 『太素』에다 이를 보충하여 『缺卷覆刻黃帝內經太素』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였다. 중국에서는 인민위생출판사가 간행한 『黃帝內經素問校譯』과 『黃帝內經靈樞校譯』에서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19세기 초에 발견 된 仁和寺本 『太素』에다 이후에 발견된 것을 보충하여 손으로 베껴 쓴 원본을 영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太素』에도 판본이 3 가지가 된다.

7) 三陽三陰을 비유한 것으로서 『素問』 「陰陽類論」에서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厥陰, 少陰을 각각 經, 維, 游部, 表, 至絕, 裏라고도 하였고, 父, 衛, 紀, 母, 獨使, 雄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의 의미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關闔樞論이 『內經』에 근거를 두었다지만 關자가 『內經』에서는 關자를 잘못 쓴 것이라는 것만 밝히려는 것이다. 關闔樞論이 맞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8) 이 편에서는 三陽三陰의 병증을 關闔樞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것과 『傷寒論』의 증상과는 상관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3) 『太素』는 楊上善이 쓴 것인데 그는 隋나라 말기에 서 唐나라 초기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唐나라 高宗(649-683년)의 명령을 받아 『素問』과 『靈樞』를 재구성하고 주석을 가하여 『黃帝內經太素』라고 하였는데 모두 스물세 권이다.

본에는 開자가 關자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글 앞에서는 “奇邪離經, 不可勝數, 不知根結五臟六腑, 折關敗樞開闔而走, 陰陽大失, 不可復取”라고 하였다. 奇邪離經과 不可勝數가 각각 4 자씩이고 不知根結五臟六腑와 折關敗樞開闔而走가 각각 8 자이며 陰陽大失과 不可復取가 각각 4 자씩 對句를 이루고 있다. 奇邪는 『素問』 「四氣調神大論篇」에 나오듯이 病邪를 의미한다.⁹⁾ 折關과 敗樞가 각각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졌고 關과 樞가 명사이듯이 開闔에서 開는 동사이어야 하고, 闔은 명사이면서 목적어이어야 한다. 앞에서는 折關, 敗樞, 開闔이라 하고, 뒤에서는 關折, 闔折, 樞折이라고 하였으니 關, 樞, 闔이 앞에서는 각각 折, 敗, 開한다고 하였고 뒤에서는 모두 折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折關과 關折, 敗樞와 樞折, 開闔과 闔折이 對가 되어, 折과 敗와 開가 모두 의미가 같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태양이 關이 아니고 開라면, 敗樞와 樞折, 開闔과 闔折은 對가 되지만 折關과 關折은 對가 되지아니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석가들은 折關敗樞와 開闔而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렇게 하므로써 의미가 분명치 않게 되었다.

결국 이 문장에서 折關은 邪氣가 문빗장인 太陽經과 太陰經을 꺾어버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敗樞는 문지도리인 少陽經과 少陰經을 망가뜨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開闔은 문짝인 陽明經과 厥陰經을 열고서 달아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折關敗樞開闔而走는 邪氣가 六經의 저지를 뚫고 몸안에 들어

오는 것이고, 關折, 闔折, 樞折은 精氣가 六經을 통하여 밖으로 새어나감을 언급한 것이다.

2. 『素問』 「皮部論」

『素問』 「皮部論」에서는 “太陽之陽, 名曰關樞. 陽明之陽, 名曰害蜚. 少陽之陽, 名曰樞持. 太陰之陰, 名曰關蟄. 少陰之陰, 名曰樞儒. 厥陰之陰, 名曰害肩”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太素』 「卷第 9 經脈皮部」에 나오는데 袁稔본과 蕭延平본 모두 少陽의 樞持가 樞特으로 되어있고, 太陰의 關蟄이 太陰과 마찮가지로 關樞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太陽과 太陰이 모두 開가 아니고 關으로 되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關樞와 關蟄, 樞持와 樞特과 樞儒, 害蜚와 害肩은 모두 두 글자로 이루어 졌고 두 글자는 각각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太陽關樞에서 關과 樞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丹波元堅이 『素問紹識』에서 주장한 것처럼 樞는 잘못된 글자로 본다. 올바른 글자가 무엇인 지는 아직 분명치않지만 의미는 關과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太陰關蟄의 蟄은 丹波元簡이 『素問識』에서 註釋한 것에서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그는 “蟄은 藥을 잘못 쓴 것이고 藥은 闔과 같다. 『谷梁傳』昭8년에 葛로써 質을 던지는 것을 藥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範寧이 藥은 門의 梘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釋文』에서는 藥은 門梘이다라고 하였다. 『爾雅』에서는 梘을 일러 문지방(闔)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周禮』에서는 考工記鄭이 闔은 古文에서는 藥로 되어있는데 바로 門의 梘이다라고 註를 하였다.

9) 이것의 근거는 金仁洛의 『黃帝內經』에 대한 對句法的 研究(1)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關槩은 문지방에서 의미를 따온 것이니, 左右의 문짝이 합한 곳이다.¹⁰⁾”라고 하였다.

그리고 陽明害蠶에 대하여서는 丹波元簡이 “害와 蠶와 闔은 고대에는 통용되었다. 『爾雅』 『釋宮』에 闔은 문짝(扉)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疏』에는 “闔은 문짝(扇)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闔은 문짝(門扇)이며 일명 閉라고 한다.”고 하였다.

蠶는 扉이 扉이고 害蠶는 闔扉이며 문짝(門扇)을 말한다. 『離合眞邪論』에 “陽明은 闔이란 것과 의미가 서로 통한다.¹¹⁾”라고 하였다.

厥陰害肩의 肩에 대하여서는 丹波元簡이 “肩은 肩과 같고 栝이다. 『說問解字』에서는 栝은 屋樞이다라고 하였다. 徐錯은 기둥위에서 대들보를 잇는 가로목인데, 누워있는 것이 비녀(笄)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또 이르기를 關은 門樞樞이다라고 하였다. 『爾雅』 『釋宮』에서는 關을 일러 栝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注』에서는 “기둥위의 각진 나무인데 栝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疏』에서는 기둥위에 있는 네모난 나무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集韻』에서는 “栝는 더러는 肩으로 쓰는데, 闔 肩은 闔扉위에서 樞를 받아들이는 栝를 말한다”라고 하였다.¹²⁾ 하지만 이렇게 되면 肩은 의미가 關과 같게 되고 害나 闔과는 다르게 된다. 따라서 肩은 扉를 잘못 쓴 것이거나 扇을 잘못 쓴 것으로 보아야지 의미가 害나 闔과 같아진다.

少陽樞持에 대하여서는 丹波元簡이 “『甲乙

10) 蓋蠶, 是藥之訛, 藥, 闔同. 『谷梁傳』昭八年, 以葛覆質以爲藥. 範寧註, 藥, 門中鼻. 『釋文』, 藥, 門樞也. 『爾雅』, 樞, 謂之闔. 『周禮』 『考工記』鄭, 注, 闔, 古文作藥, 乃門中樞也. 關藥者, 取于門中之樞. 左右之扇所合處乎.

經』에는 持가 杼로 되어있는데 ……『甲乙經』에 근거하여 樞杼는 樞軸이다. 『詩經』 『小雅』에 “小車大車, 杼柚其空”이라 하였다. 柚는 軸과 같다. 『淮南子』 『說林訓』에 “黼黻之美, 在于杼柚.”이라 하였다.¹³⁾”라고 교정하였다.

그리고 少陰樞儒에 대하여서는 丹波元簡이 “儒는 新校正에서 『甲乙經』을 인용하여 樞라고 하였는데 옳은 것으로 보인다. 樞는 榑로도 쓰고 榑로도 쓴다. 『爾雅』에 榑는 窰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註에 이르기를 榑이다라고 하였다. 『疏』에 斗拱이다. 『蒼頡篇』에 이르기를 斗拱이고 기둥위의 나무이다라고 하였고, 기둥위에서 斗를 잇는 구부러진 나무이다. 少陰의 陰은 樞위에 있는 기둥머리의 樞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므로 樞樞라고 한다.¹⁴⁾”라고 하였다.

이처럼 關樞에서 樞는 誤字로서 바른 글자는 문빋장인 關과 의미가 같은 글자이어야 하고, 關螿에서 螿은 문지방으로서 문짝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게 하므로 關과 의미가 통한다.

害蠶에서 害는 闔과 같고 蠶는 扇과 같으므로

11) 蓋蠶蓋闔, 古通用. 『爾雅』 『釋宮』, 闔, 謂之扉. 『疏』, 闔, 扇也. 『說文』曰, 闔, 門扇也. 一曰, 閉也. 蠶, 音扉. 害蠶, 卽是闔扉. 門扇之謂. 『離合眞邪論』云, 陽明爲闔, 義相通.

12) 蓋肩, 肩同, 栝也. 『說問』, 栝, 屋樞也. 徐錯云, 柱上橫木承棟者, 橫之似栝. 『說文』又曰, 關, 門樞樞也. 『爾雅』 『釋宮』曰, 關, 謂之栝. 注, 柱上樞也. 亦名栝. 疏, 柱上方木, 是也. 『集韻』, 栝, 或作肩, 闔肩者, 謂闔扉上容樞之栝歟.

13) 『甲乙』, 持, 作杼. ……簡按居『甲乙』, 樞杼, 卽樞軸. 『詩』 『小雅』, “小車大車, 杼柚其空.” 柚, 軸同. 『淮南』 『說林訓』, “黼黻之美, 在于杼柚.”

14) 儒, 新校正引『甲乙』, 作樞, 似是. 樞, 或作榑. 又作榑. 『爾雅』, 榑, 謂之窰. 注, 卽樞也. 疏, 謂斗拱也. 『蒼頡篇』云, 榑拱, 柱上木也. 柱上承斗之曲木也. 少陰之陰, 取名于樞上柱頭之樞, 故曰樞樞歟.

로 害와 蠶는 모두 문짝을 의미한다. 害肩에서 肩은 蠶나 扇을 잘못 쓴 글자이다.

樞持에서 持는 杼를 잘못 쓴 것이며 杼는 樞와 의미가 통한다. 樞儒의 儒는 樞를 잘못 쓴 것으로서 樞와 樞는 의미가 통한다. 만일 太陽을 開라한다면 開와 蠶는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3. 『素問』 「陰陽離合論」

王冰本 『素問』 「陰陽離合論」에서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關, 厥陰爲闔, 少陰爲樞.”로 되어 있고 柯琴은 이를 근거로 開闔樞論을 전개하였다.

이 부분은 『太素』에서는 「卷第 5 陰陽合」에 나오는데 丹波元堅은 『素問紹識』에서 『太素』에는 開가 關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¹⁵⁾

袁昶本 『太素』 「卷第5 陰陽合」에서는 이를 王冰본과 마찬가지로 開로 보았으며 蕭延平本에서는 關으로 보았다.

蕭延平은 三陽에 대하여 “太陽爲關의 關자가 『甲乙經』, 『素問』, 『靈樞』에서는 한결같이 開로 되어있다. 일본 鈔本에는 한결같이 關으로 되어있는데, 關자는 關자를 간단히 쓴 것이다. 門에는 3가지가 있고 그 중 하나는 門關으로서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는 楊上善의 주석을 음미해 보건데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는 의미로서는 關자가 낫다. 開자라면 이러한 설명은 성립되지않는다……16)”라고 註를 달았다.

楊上善의 주석은 “門이란 3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문빚장(門關)인데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足太陽膀胱經은 津液이 毛孔에 미치는 것을 禁하므로 關이라고 한다. 둘째는 문짝(門闔)인데 門扇을 말하며 닫는 것을 주관한다. 足陽明胃經은 眞氣로 하여금 멈추어 쉬게하면서도 머물러 정체되지 않게 하므로 이름하여 闔이라 한다. 세째는 문지도리(門樞)인데 돌아가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足少陽膽經은 筋을 주관하여 모든 뼈들을 묶고 이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므로 樞가 된다.”¹⁷⁾라고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三陰에 대하여 楊上善이 註釋하기를 “三陽은 바깥쪽문이고 三陰은 안쪽문이다. 안쪽문에는 바깥쪽문과 마찬가지로 3가지가 있다. 하나는 門빚장으로서 금하는 것을 주관한다. 足太陰脾經은 음식물의 기운을 단속하고 소화기로 보내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므로 빚장이라고 한다. 둘째는 문짝이다. 열고 닫는 것을 주관한다. 足厥陰肝經은 神氣가 나가고 들어오며, 통하고 막히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도록 지키는 것을 주관하므로 문짝이라고 한다. 세째는 문지도리인데 움직여 도는 것을 주관한다. 足少陰腎經은 津液이 흐르는 것과 모든 경맥이 통하

16) 平按: 太陽爲關, 關字『甲乙經』, 『素問』, 『靈樞』均作開. 日本鈔本均作開, 乃關字省文. 玩楊注門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主禁之義, 關字爲長, 若開字則說不去矣.

17) 夫爲門者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主禁津液及於毛孔, 故爲關也.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關閉也. 胃足陽明脈令眞氣止息, 復無留滯, 故名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主筋, 網維諸骨, 令其轉動, 故爲樞也.

15) 丹波元堅은 1795에 태어나 1857년까지 살았는데 이 책을 쓴 때는 1846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太素』가 日本 仁和寺에서 발견된 때는 19세기 초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丹波元堅은 仁和寺본을 보았을 것이다. 袁昶과 蕭延平은 이보다도 늦게 仁和寺본을 본 것인데 袁昶은 開로 보았고 蕭延平은 關으로 보았다.

는 것을 주관하므로 문지도리라고 한다.¹⁸⁾”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三陰三陽經의 역할 중 음식물의 氣運이나 神氣나 津液 등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문의 세 부분에 비유한 것이다. 三陽經은 밖에 있는 문이며 三陰經은 안에 있는 문이고, 太陽太陰은 關으로서 문지방이며, 陽明厥陰은 闔으로서 문짝이고, 少陽少陰은 樞로서 지도리이다.

따라서 王冰본에서는 關라고 하였지만, 『太素』에서는 丹波元堅과 蕭延平은 關으로 보고 關자는 關자를 간략하게 쓴 것이라고 하였고, 袁稔은 開로 읽고 있다. 똑같은 글자를 두고서 이렇게 달리 읽는 까닭은 丹波元堅과 袁稔 그리고 蕭延平이 본 『太素』가 손으로 쓴 것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太素』에는 과연 關으로 되어있는가? 開로 되어있는가?

(자료 1) 과 (자료 2) 는 東洋醫學研究會에서 仁和寺본을 영인한 것인데¹⁹⁾ 이를 살펴보면 太陽爲와 太陰爲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關자로 보기에 門안에 있는 卍의 위쪽 앞머리가 너무 굵다. 여기에서 丹波憲基의 필체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먼저 關자가 關자로 쓰여진 부분부터 살펴보자.

(자료 3)은 王冰본 『靈樞』「根結」에 해당하는 『太素』「卷第 10 經脈根結」로서 “折關敗樞 開闔而走”의 關자가 關자로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료 4) 도 같은 편인데 “太陽爲關 ……關折卽……”의 關자 두개가 모두 關자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자료 5) 도 마찬가지로 “太陰爲關……關折卽……”에서 앞의 關자는 너무 흐려 확인할 수가 없지만 뒤의 關자는 분명히 關자로 되어있다. 그리고 關闔樞와는 상관이 없지만 關자를 關으로 쓴 경우는 (자료 6) 『太素』「卷第 10 經脈根結」 “手少陽根於關衝……外關” 인데 關자 둘을 모두 關자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太素』에서 開자를 開자 그대로 쓰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자료 7)이다. 이는 王冰본 『素問』「陰陽應象大論」에 해당하는 『太素』「卷第 3 陰陽雜說」이다. “東方青色……開竅於目”의 開자는 분명히 開자 그대로 쓰고 있다. (자료 8, 9, 10, 11) 은 이 편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 “開竅於耳, 開竅於口, 開竅於鼻, 開竅於二陰” 라하여 開자를 開자 그대로 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료 12) 는 『素問』「皮部論」에 해당하는 「卷第 9 經脈皮部」인데 “邪客於皮, 則腠理開, 開則……” 이라 하여 開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4. 『靈樞』 「本藏」

『靈樞』 「本藏」에서는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太素』 「卷第 6 五臟命分」에 나오는데 袁稔본에서는 이와 똑같이 司開闔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蕭延平본에서는 司開闔이 司關闔으로 되어있다. 蕭延平은 “關자가 원래의 鈔本에는 關으로 되어있는데 關자는 關자를 간단

18)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藏足太陰脈主禁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 故爲關也. 二者門闔, 主開閉者也. 肝藏足厥陰脈主守神氣出入通塞悲榮, 故爲闔也. 三者門樞, 主動轉也. 腎藏足少陰脈主行津液通諸經脈, 故爲樞者也.

19) 東洋醫學研究會: 東洋醫學善本叢書, 黃帝內經太素上.

히 쓴 것이다.”²⁰⁾라고 註를 달았다.

溫, 充, 肥가 동사이고 分肉, 皮膚, 腠理가 명사이면서 목적이듯이, 司가 동사이고 關關이 명사이면서 목적이이다. 따라서 司關關은 司關關이며 司關關은 司關關樞를 의미한다.²¹⁾

이처럼 開關樞論은 柯琴이 『內經』 『陰陽離合論』을 근거로 하여 『傷寒論』을 해석하였다지만 실제로는 關關樞이며, 開자는 『內經』에서 關자가 關자로 쓰여진 것을 잘못 읽은 것이다. 따라서 開關樞論은 『內經』의 원 뜻이 아니다.

나 太陰經으로부터 들어오고 문짜(關)에 비유되는 陽明經이나 厥陰經으로는 다음에 들어온다는 이론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도리를 망가뜨린다고 하고 꺾는다라고도 하였는데 지도리를 망가뜨리지 않아도 꺾지 아니하여도 빗장만 제치면 문짜를 열든지 밀든지 하여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따라서 邪氣가 빗장을 꺾고 지도리를 망가뜨리고 문짜를 열고서 달린다는 말을 질병이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한다라고 보아야 할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5. 關關樞의 의미

關關樞는 문을 이루는 세부분으로서 빗장, 지도리, 문짜를 의미한다. 이는 經脈이 하는 기능중 체외에서 체내로 邪氣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체내로 부터 체외로 精氣가 빠져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經穴에 침을 놓든가 뜸을 뜨든가 하여 邪氣는 뽑아내고 精氣는 더하여 주듯이 邪氣는 뽑아내고 精氣는 들여보내 주는 창구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리고 『內經』에서 關關樞의 순서대로 질병이 들어온다는 증거는 아직 확실치않다. 『傷寒論』에서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의 순서로 기술되었기에 이와 관련지워본다면, 문을 통과할 때 빗장을 제치고 난 뒤 문짜를 열기 때문에 邪氣가 인체에 들어올 때에도 빗장(關)에 비유되는 太陽經이

21) 經脈뿐만 아니라 五臟에 관한 기술에서도 關이 문빗장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素問』 『水熱穴論』에 “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라고 하였는데 이를 『太素』 『卷第十一 氣穴』에서는 “腎者, 胃之關閉, 關閉不利”라고 하였다. 關은 빗장이고 閉는 자물쇠로서 關과 閉는 품사도 같고 의미의 계통도 같다. 그리고 자료 13. 에서 關자를 關자로 쓰여 있음을 알 수있다.

20) 平按: 關字原鈔作開, 乃關字省文, ...

III. 結 論

柯琴이 開闔樞論을 끌어낸 王冰본 『素問』 「陰陽離合論」과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素問』 「皮部論」, 『靈樞』 「根結」, 그리고 『本藏』에서 발췌하여 開闔樞라고 할 때의 모순점을 제시하고, 이들 내용이 담긴 『太素』 「卷第 5 陰陽合」, 「卷第 9 經脈皮部」, 「卷第 10 經絡根結」, 「卷第 6 五臟命分」을 袁昶본, 蕭延平본, 그리고 東洋醫學研究會에서 원관을 영인한 것 등에 근거하여 開闔樞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開闔樞의 開지는 『內經』에서 開자를 잘못 읽은 것이고 關지는 關자를 간단히 쓴 것이다. 따라서 開闔樞는 關闔樞로 보아야지 『內經』의 원래 의미와 일치한다.

2. 關闔樞란 六經의 작용을 문에다 비유한 것이다.

六經은 邪氣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精氣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는다. 뿐만아니라 이미 들어온 邪氣를 쫓아내고 모자라는 精氣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맥의 작용을 문에다 비유하여 關闔樞라고 하였는데, 楊上善은 三陽을 바깥문으로 보았고 三陰을 안쪽문으로 보았다.

3. 關이란 빗장으로서 太陽과 太陰의 기능을 비유한 것이다. 闔은 문짝으로서 陽明과 厥陰의 작용을 비유한 것이다. 樞는 지도리로서 少陽 少陰의 역할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가 갖는 의미는 아직도 연구과제이다.

參考文獻

1. 金仁洛:『黃帝內經』에 대한 對句法的 연구(1).
2. 이용범:楊上善이 『太素』에 주를 단 시기 및 시대 배경 그리고 『黃帝太素』가 전해 내려온 과정에 대하여, 박사과정 3기 중간발표.
3.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
4.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
5. 柯琴:傷寒來蘇集.
6. 丹波元簡:素問識.
7. 丹波元堅:素問紹識.
8. 東洋醫學研究會:東洋醫學善本叢書: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
9. 蕭延平:黃帝內經太素.
10. 王冰:黃帝內經素問.
11. 袁昶:黃帝內經太素.

KYOBO
교보문고